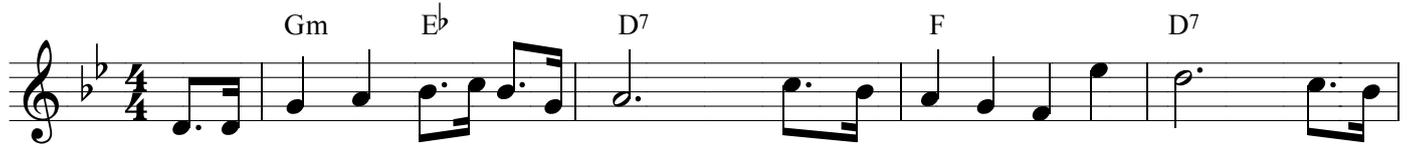


# 강제 철거없는 세상을 위해

용산 강제철거 살인진압으로 뉘이된 동지들에게 바칩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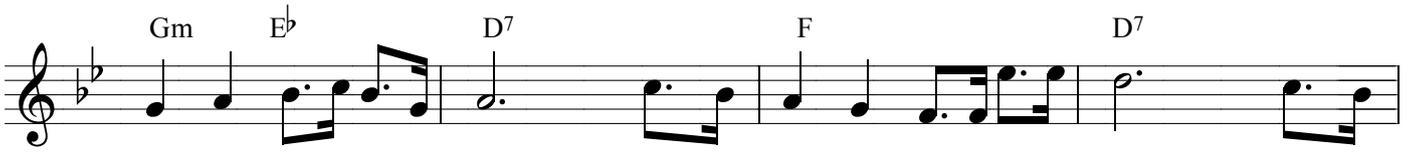
글곡.김성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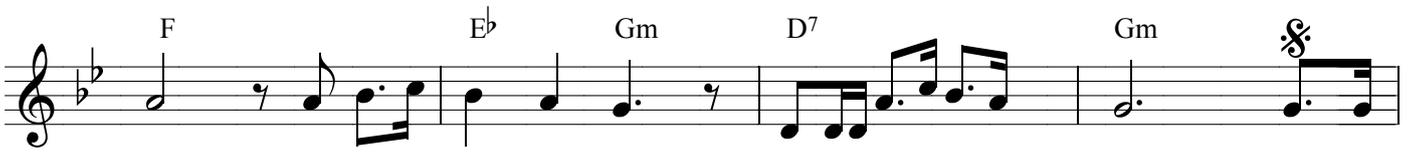
우 리 살 아 가 기 위 하 여 살 아 남 기 위 하 여 한 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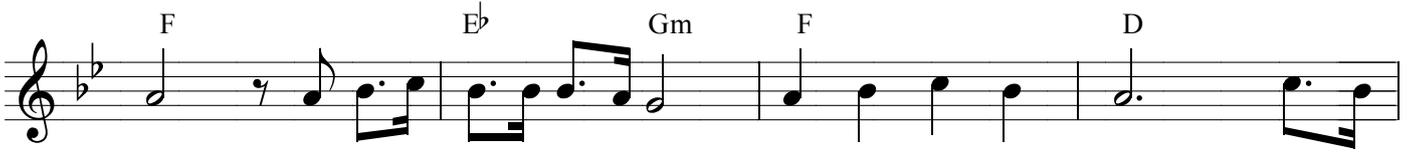
음 무 거 운 발 걸 음 으 로 망 루 를 향 해 올 랐 다 여 기



사 람 사 람 있 다 고 사 람 답 게 살 고 싶 다 고 애 님



은 그 대 의 외 침 은 시 커 먼 재 로 날 린 다 동 지  
가 난



여 그 대 의 빛 나 는 투 쟁 빛 나 는 사 랑 동 지  
한 사 람 은 사 람 도 아 닌 절 망 의 세 상 살 려



여 그 대 의 솟 덩 이 가 슴 불 썬 로 살 아 그 대  
고 저 높 이 올 라 갔 는 데 불 썬 로 남 아 가 난



가 - 부 르 던 노 래 이 제 내 가 부 른 다 그 대  
해 도 행 복 했 는 데 그 것 마 저 뺏 길 순 없 다 철 거



가 던 투 쟁 의 길 에 이 제 내 가 당 당 히 선 다  
없 는 세 상 를 향 해 이 제 우 리 함 께 가 려 다